

이순신 장군 백의종군 길 걷기행사

남원시, 16일 개최... 참여 접수

남원시는 오는 16일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역사유적지를 걸으며 체험하는 '제3회 이순신장군 백의종군 길 걷기행사'를 개최한다. 올해로 3회째인 이번 행사는 기념식, 유래설명, 신관사포공연단의 취타대 연주, 이순신장군 재연 퍼포먼스를 선도로, 주천면 외평마을~정문동~뒷밭재(지리산유스퀘어)까지 총 4km 코스(약 2시간)를 걷는다.

참여대상은 남원시민, 관광객, 단체 등 선착순으로 제한이 없으며, 참가신청은 남원시 관광협의회(633-5353)에 방문접수 또는 현장접수도 가능하고 참가비는 없다.(남원시청 관광과 620-6164)



남원시는 오는 16일 '제3회 이순신장군 백의종군 길 걷기행사'를 개최한다.

군이 파직 후 백의종군할 것을 명(命)받고 초계(경남 합천)의 도원수부를 찾아가는 여정을 복원한 길로, 해군사관학교 역사기록관리단과 순천대학교 이순신 연구소의 고증에 의해 전국 총 640km 구간이 확인되었다.(서울~전주~남원~운봉~구례~순천~봉림)

남원구간은 오수면 금암교에서 시작해 뒷밭재~남원부~이백초등학교~여원치~운봉초등학교~주천~앞밭재에 이르는 총 53.1km 구간으로, 남원의 역사와 문화의 발자취를 느껴볼 수 있으며, 지난 2017년부터 이백~여원치~운봉초등학교 10km구간과 뒷밭재~남원향교(남원부)~운성관을 걷는 코스를 진행해 왔다.

양선모 남원시 관광진흥계장은 "남원시는 그동안 걷기여행 트랜드에 맞춘 감성여행길, 춘향길, 백의종군길, 남원의 10선 찾아가기 등(도)문화 인프라 구축의 자원화에 기여해 왔으며, 앞으로도 판소리 흥부전의 사랑과 우애의 가치를 되새기는 '흥부 대박길'을 조성할 계획"이라며, "역사적으로 뜻깊은 이순신 백의종군 길을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걸으며 나라사랑의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군 지사면에서는 13일 지사면 종합복지회관에서 새마을지도자 남녀협의회 회원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를 가졌다.

지사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사랑의 김장나누기행사

임실군 지사면에서는 13일 지사면 종합복지회관에서 새마을지도자 남녀협의회(조완열, 최남) 회원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회원들이 직접 생산한 배추 1,000포기와 고추, 마늘 등 정장 농산물로 정성껏 김치를 담갔다.

이날 담근 김치는 10kg씩 100박스로 포장하여 거동이 불편하거나 김장하기가 힘든 관내 독거노인, 소외 계층, 경로당 등에 직접 전달했다.

새마을지도자 조완열 협의회장은 "회원들이 맛있게 담근 김치를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전달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면서, 이웃들이 올 겨울을 건강강하고 따뜻하게 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주진 지사면장은 "추운 겨울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정을 나누기 위하여 추운 날씨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군, 공공비축미 건조벼 매입 실시

순창군이 12월 2일까지 각 읍·면별 정부양곡 보관창고에서 27회에 걸쳐 2019년산 공공비축미(건조벼)를 매입한다. 이와 관련 지난 12일 순창군 유등, 쌍치, 구림면에서 수매가 이뤄져, 추운 날씨속에서도 아침부터 나온 농민들이 올해 재배한 쌀의 등급관정을 기다렸다.

올해 공공비축미 총 매입물량은 8만 7,891포대(산물벼 2만 217포대, 건조벼 5만 8,480포대, 친환경벼 9,194포대)로 올해는 일반 건조벼 외에 처음으로 친환경 벼도 수매를 진행한다.

매입품종은 신종진 품종만 가능하며 중간정산금(3만원/40kg)을 농가 수매

직후 지급하고, 최종 정산은 매입가격이 확정된 후 연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품종 혼입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비축미품종검정제도」를 실시하며, 농가 수매시 현장에서 시료채취 후 검정기관의 검정을 거쳐게 된다.

검정결과 매입대상 품종인 신종진 품종 외에 다른 품종을 출하한 농가에 대해서는 공공비축미 매입대상 농가에서 5년간 제외되는 등의 패널티를 부과 예정이므로 공공비축미 출하 농가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순창=이양원 기자

지리산국립공원, 겨울철 자연재난대책 추진

지리산국립공원전북사무소(소장 조점현)는 오는 2020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을 겨울철 자연재난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각종 자연재난으로부터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과 공익시설물 피해 최소화를 위해 겨울철 자연재난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전 직원이 재난대비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하면서 특별관리 대상 지역(고립대상지역, 상습결빙구간 등)

에 대해 현장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해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 밝혔다.

심옥식 재난안전과장은 "폭설과 한파 등 자연재해로 인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만큼 개인 안전장비를 철저히 준비하고 산행 전에 반드시 기상정보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군, 치매안심마을 조성

갈마마을·발산마을 사업 본격화

"치매에 걸리면 딱 노망들어 죽는 줄만 알았지. 이렇게 같이 살면 되는데. 갈쳐워서 고마워. 참말로 고맙구먼"

임실군 임실읍 갈마마을에 살고 있는 고령의 한 어르신은 치매안심마을이 조성된다는 소식에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임실군이 치매환자와 가족이 지역사회에서 고립되지 않고 돌봄을 받으면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치매 친화적인 마을을 조성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임실군 치매안심센터는 최근 임실읍 갈마마을과 청운면 발산마을에서 성과보고를 가졌다.

갈마마을과 발산마을은 치매안심마을로 선정된 이후 운영위원회를 구성, 치매 안심마을 운영방향과 건의사항

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다.

또한 치매안심마을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전 설명회를 통해 지역 주민에게 사업을 안내하기도 했다.

갈마마을과 발산마을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치매인식개선 및 치매파트너의 마음가짐이나 역할에 대해 교육도 실시했다.

치매인식개선 캠페인을 통해 치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바로잡고, 더불어 함께 안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치매안심마을이 조성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앞으로도 치매안심마을에서는 지속적으로 원예, 미술, 뇌신경체조와 같은 치매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마을주민들이 치매파트너 교육을 받고 치매조기발견 및 치매환자 투약관리, 치매환자와 친구 맺기 등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치매환자와 가족들이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에 불편함 없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연차적으로 치매안심마을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군 치매안심센터는 치매환자와 가족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임실군이 되도록 치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치매의 올바른 이해도도 및 치매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려나갈 방침이다.

심민 군수는 "우리 지역은 고령층 어르신들이 전체 인구의 30%를 넘고 있어서, 어르신들의 건강 복지에 남다른 신경을 쓰고 있다"며 "사회적 문제인 치매를 예방·극복하고, 지역어르신들이 보다 안락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지역 매아리

남원, 숲가꾸기사업 최우수기관

남원시가 전북도에서 실시한 2019 숲가꾸기사업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이번 평가는 14개 시·군에서 실시되었으며, 남원시의 경우 사업지에 대한 품질향상 및 적정성 부분과 나무의 나이에 맞는 풀베기·어린나무가꾸기·큰나무가꾸기를 적기 적용하고, 특히, 주요 도로변 덩굴류 제거로 쾌적한 경관을 창출하는 등 사업별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조기에 사업을 착수해 연간 근로자 7,000여명이 고용되는 일자리 창출과, 사업시 발생한 부산물이 지역주민과 산주들이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료 절감에도 크게 도움을 주는 등 사업의 우수성을 높이 평가받았다.

남원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산주(山主)의견 반영과 현지 여건에 맞는 설계·시공을 통한 생태숲 조성과 수원함양 등 공익적 기능 향상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는 등으로 미세먼지 저감 등 숲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는 데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남원시는 2020년에도 16억원을 투입해 '일터, 쉼터, 삶터'로 재탄생하는 산림이 되도록 사전 설계실시 등을 추진해 적기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인월면지역 초중고

플리마켓 운영 수익금 기부

남원시 인월면지역 초중고가 어울림 달빛제 플리마켓을 운영하여 발생한 수익금 84만원 전액을 인월 관내에 어려운 이웃을 도와달라는 뜻으로 인월면사무소에 기부해 칭송받고 있다.

이 지역 어울림 달빛제는 학생자치회를 통한 자존감 형성, 마을과 함께하는 교육과정 마련을 통한 지속가능한 교육터전 운영, 진로자율을 연계한 다양한 진로교육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교육과정을 반영한 축제이다

이번 플리마켓에는 참제동아리, 자율동아리, 마을과 함께하는 내일 상상프로젝트(아름다운 후원재단), 초·중·고 학부모 동아리 활동, 중학교 1학년의 '날고나'라는 작은 시도 등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총12개의 플리마켓이 운영되었다.

한편 학교 관계자는 "어울림 달빛제 축제를 매년 실시해 발생한 수익금으로 어려운 이웃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 N 치즈

벨기에 출신 지정한 신부(Didier l'Sersl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